

역사문화자원의 경관계획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청주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for Landscape Planning

- A Case of Cheongju City -

박 재 평*
Park, Jae-Pye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application plan for the landscape planning after grasp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in Cheongju city and closely examining their conservation and use state. Concerning the method of the study, I considered the resources related concepts and came up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nd the application planning as landscape factors after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nd their present situation. Regarding the study or research, I studied the cultural asset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historical and cultural planning, and further examined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by dividing them diversely and further, studi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ir system and the related law. For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resource in Cheongju city I conducted the assessment of the landscape resources by areas, types, locations. On the basis of this study I came up with the basic direction for the application plan and the solution to the management of the landscape and think that these plans or suggestions will make a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ir identity by regions.

키워드 : 역사문화자원, 경관계획, 문화재, 역사환경, 청주시

Key Words :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Landscape Planning, Cultural Heritage, Historic Environment, Cheongju Cit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역문화의 보전과 활용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여 이를 도시 마케팅과 연계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역문화 차원에서 볼 때 특정지역의 전통건축물, 오래된 가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 전설이 존재하는 장소 등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은 해당 지역에 점적, 선적, 면적으로 존재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¹⁾. 즉 유형과 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역사문화자원이 존재하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볼 때 최근 역사문화경관이 각 지역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이유는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에 산재하고 있는 유구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경관계획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역사문화자원의 주변경관을 보전함

으로써 해당 지역의 이미지 향상 뿐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연계전략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실시 이후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시재생 및 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고, 특히 경관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도시경관을 보는데 그치는 수동적 경관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능동적 경관관리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역사문화자원의 효율적인 보존을 꾀하면서 경관요소로의 활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 대상이 되는 청주 원도심 지역은 조선말 청주읍성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적 역사 환경의 가치요소를 보유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나 도시 영역이 외부로 확장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지역 가치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경관요소로의 활용방안도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에서 앞으로 이 지역 역사문화 자원의 경관요소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청주 원도심 지역에 주로 산재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기본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보존 및 활용현황을 살펴본 후 바람직한 경관계획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청주 원도심의 가치 제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정희원,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공학박사

1)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도시정비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향” 세미나, 2007, pp.6~8

본 연구는 충북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도시이며 2014년 7월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시를 중심으로 하며 구체적인 공간범위는 조선시대 읍성지역으로서 지속적으로 정치, 경제의 중심기능을 해 온 청주 원도심 지역인데 이 지역은 청주시의 대표성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구분	내용
관련개념 고찰	· 관련이론 고찰을 통한 연구의 필요성 제시 · 관련법과 관련제도의 고찰
실태조사 및 분석	· 문헌자료, 사진 및 도면을 통한 역사문화자원 분석 · 현장답사를 통한 대상자원의 건조 및 활용실태 조사 · 분석 · 경관자원의 항목별 평가분석

연구의 방법은 먼저 이론적 고찰로 문화재, 역사문화자원, 역사 문화환경 등의 관련개념들을 살펴보고,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도시 역사문화환경의 의미도 고찰한다. 이어서 청주시 역사문화자원의 기본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원의 보존과 활용현황을 파악한 후 경관요소로서의 기본적인 활용 지침을 도출하고, 결론으로 경관요소로서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다양한 역사경관 창출에 기여하도록 한다. 연구대상은 청주시 소재 73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현황조사와 이들 중 경관계획의 활용도 제고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33개 건조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경관평가를 실시하였다.

2. 관련이론 고찰

2.1 역사문화자원 관련 개념 고찰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의 정의는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는 역사성, 희귀성, 심미성 등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역사성은 해당 문화재가 만들어지거나 발생한 시점이 특정기간 이상 오래되어야 하고, 특히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깊은 특성이 있고, 희귀성은 현존하는 해당 문화재가 동일한 것이 수적으로 적을 때의 가치를 말하며, 심미성은 미적으로 아름답거나 고풍의 멋이 있고, 조형미가 있는 특성을 말한다²⁾.

역사문화자원이란 도시 또는 지역이 지닌 모든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³⁾,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와 유사하지만 일부는 포함되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으며, 문화재에 포함되지 않는 근대문화재를 포함하기도 한다. 역사문화자원은 또한 면적 보전 측면의 역사 환경과 유사하지만 역사 환경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문화자원과 무형적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 도시정비 측면에서의 역사문화자원은 역사성을 지닐 정도의 오랜시간이 지나고, 주민의 생활문화에 속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며, 대상자원의 자체적인 심미성이 있거나 맥락적으로 경관성이나 고유의 도시조직을 지닌 경우와, 역사적 사건 또는 개인의 추억이 될 수 있는 장소 등을 의미한다.

역사문화 환경이란 광의적으로는 역사의 결과로써 형성된 모든 환경을 의미하며, 협의적으로는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물리적 형태와 문화적 형태가 비교적 분명하게 연관된 하나의 지역 또는 경관⁴⁾이라고 할 수 있다⁵⁾. 이러한 역사문화 환경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전과 더불어 주변의 인위적인 환경을 이와 어울리도록 조성하는 것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문화재 보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⁶⁾. 역사문화 환경은 면적인 보전대상으로서 맥락성, 장소성, 경제성 등이 있을 경우 역사문화 환경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맥락성은 기존의 도시조직이나 공간조직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속성으로서 공간구조 및 경관에 영향을 주는 특성이다. 장소성은 잠재되어 있는 과거의 장소적 특성들과 공간이미지들이 현재의 도시 활동과 기능적으로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속성이며, 경제성은 지역의 활성화와 재생의 가능성 여부이다.

역사문화 경관이란 도시의 역사 환경이 지역의 문화와 연계되어 그 도시의 독창적인 역사성 및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도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연적 또는 물리적 형태와 문화적인 형태가 명확하게 관련된 하나의 지역 또는 경관이라 할 수 있다⁷⁾. 이러한 역사문화 경관은 그 지역 고유의 문화로 발전해 온 것으로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시간이라는 변화 요소에 의해 발전, 소멸, 대체의 과정을 밟는 유기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에도 계속될 인간과 자연간의 상호작용의 복합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⁸⁾. 청주시 경관조례에서는 문화재, 건축물, 기념물, 조형물, 터 등

4) 이에 대해 강병기(1997)는 “역사문화환경은 시간을 두고 쌓아온 사람들의 삶의 축적물 전체로 어우러진 환경으로 자연환경과는 다른 인공적 환경이며, 그 것은 가시적·물리적인 환경과, 비가시적이고 정신환경, 그리고 기능적 환경과 감성적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5) 최강림·이승환,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계획 사례연구 : 인천시 구도심 ‘인천아트 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44권 제2호, 2009.4

6) 오세경·조홍석·김정동, “공주시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유형 분석”, 국토계획, 제35권 제5호, 2001.10

7) 신지훈, 역사문화경관과 도시경관계획, 한국경관협의회 “인간중심의 공간문화조성에 관한 세미나”, 2007

8) 강동진, “근대역사환경 보전의 패러다임 모색”, 국토계획, 제34권 제1호, 1999

2)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도시정비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활용방향” 세미나, 2007, pp.6-8

3) 오세경·조홍석·김정동, “공주시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유형 분석”, 국토계획, 제35권 제5호, 2001.10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요소들로 구성된 경관을 역사문화경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표 2. 관련개념 고찰

구분	개념 및 특징	비고
문화재	·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 역사성, 희귀성, 심미성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역사문화자원	· 도시 또는 지역이 지닌 모든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다 포괄적 개념 · 역사성, 심미성, 맥락성, 경관성	점적 자원 선적 자원 면적 자원
역사문화환경	·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물리적 형태와 문화적 형태가 비교적 분명하게 연관된 하나의 지역 또는 경관 · 맥락성, 장소성, 경제성	면적 보전 대상
역사문화경관	· 역사문화자원의 자연적, 물리적 형태와 문화적 형태가 명확하게 관련된 지역 혹은 경관	

2.2 역사문화자원과 경관계획

역사문화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형태와 기능적인 면에서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지역의 동질성과 연속된 규칙성에 의해 전체로서 다른 환경과 구분되는 특성이 있고, 시간이라는 변화요소에 의해 발전, 소멸, 대체의 과정을 밟는 유기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문화재 주변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행위나 보이지 않는 문화적 느낌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역사문화 자원은 오래된 건축물 혹은 유적, 사적 등의 자원이 대표적이지만, 오랫동안 계승되어 전해온 문화유산, 도시조직과 같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형성된 도시환경도 큰 의미에서 역사문화 자원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을 위한 제도들은 항상 개발이라는 문제와의 갈등 속에서 보존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 규제만 적용하였고, 규제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나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는 데 많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도시경관계획에서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경관지구 혹은 완충구역의 지정, 규제방법 및 규제 대상의 적정 범위설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문화자원에 대하여 개별적인 건축 규제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3 역사문화자원의 유형 구분

(1) 형태 및 분포에 따른 구분

역사문화자원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크게 점적자원, 선적자원, 면적자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점적자원은 대부분 시각적으로 조망이 가능한 건축물이나 조형물 등으로 구성되며, 선적자원은 도로, 성곽, 다리 등 토목 구조물

등이 해당되고, 면적자원은 군락지, 집락지, 유적지, 자연자원 등이 해당된다.

(2) 관련법(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구분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무형문화재(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기념물(사지·고분·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동물·지질·생물학적 생성지 및 특별한 자연현상 등), 민속자료(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의복·기구·가옥 등)등이 있다.

한편, 지정여부 및 지정주체에 따라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되며,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으로 구분되고, 비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 매장문화재, 일반 동산문화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4 관련법과 제도 현황

문화재 관련법은 1960년대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별 환경에 부응하여 많은 변화과정을 거쳐 오게 된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 지역의 문화재와 전통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역사문화 환경과 관련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분야에서의 역사문화 환경법과 제도들도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변천과정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다. 특히, 최근에 와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등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표 3. 역사문화환경 관련법과 제도

연대	문화재관련	도시계획관련
1950 이전		
1960	문화재보호법/문화재 보호구역지정(1962)	도시계획법(1962) 미관지구 지정
1970	집단민속자료구역 신설(1973)	고도지구 세분화/ 보존지구 신설(1971) 미관지구 세분화(1973) 건축허가사전승인제도 신설(1978)
1980	집단민속자료구역 폐지(1983) 전통건조물보존법(1984) 전통사찰보존법(1987)	도시설계제도 도입(1980)
1990	전통건조물보존법 폐지(1999)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조항 신설	문화예술진흥법/문화지구 지정(1995) 건축허가사전승인제도 폐지(1999)
2000	등록문화재 신설(2001)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200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신설(2010)	지구단위계획 도입(19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 경관법(2007)

자료: 관련법 정리

표 4. 역사문화환경 관리를 위한 지구/구역

구분	법률	지구/구역	내용
문화재 관련 제도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고도 보존법	특별보존지구	보존의 가치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형(原形)이 보존되어야 하는 곳
		역사문화환경지구	특별보존지구 주변지역 중 현상변경을 제한하여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
도시계획 관련 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최고고도지구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문화지구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

자료 : 관련법 정리

3. 청주시 역사문화자원 실태조사 및 분석⁹⁾

3.1 문화재 현황

(1) 지정주체 및 성격별 현황

청주지역의 문화재를 지정주체별로 분석해 본 결과 국가지정이 31건, 도지정이 42건 등 73건으로 나타났는데¹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2건, 보물 12건, 등록문화재¹¹⁾ 8건 등이며,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22건, 기념물 12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격별로 분류해 보면 유형문화재 20건, 무형문화재 10건, 기념물 5건, 민속자료 1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경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등인데 청주시의 경우 이 부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지정주체별 문화재 현황

지정주체	국가지정						도지정					계	
	소계	국보	보물	사적	중요민속	등록	소계	유형	기념	무형	자료		민속
건	31	2	12	4	5	8	42	22	12	4	3	1	73

(2) 유형별 현황

9) 2014년 7월 청주·청원이 통합되었으나 두 지역의 특성이 달라 청원 지역은 조사에서 제외하고 통합 전 청주시의 원도심과 주변에 위치한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10) 총 93건 중 비지정문화재 20건은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1) 등록문화재는 주로 근대건축물로 최근에 지정되었다.

전체 문화재 73건 중에서 건축물 20건, 불상 10건, 서적류, 비석이 7건, 출토유물 6건, 무형문화재 4건, 성 및 탑이 각각 2건이며, 기타 사지, 무덤, 유적, 보호수 등 14건으로 나타났다.

표 6. 유형별 문화재 현황

구분	건축물	불상	서적류	비석	출토유물	무형문화	성	탑	기타	계
건	20	10	7	7	6	4	3	2	14	73

(3) 소유자별 현황

소유자별로는 충북도·청주시 등 지자체가 15건, 국가, 종중, 개인이 각각 12건으로 나타났고, 대학교 등 교육기관이 10건, 사찰 5건, 기타 향교재단, 성공회, 유도회 등 기타가 6건을 보유하고 실정이다.

표 7. 소유자별 문화재 현황

소유자	지자체	국가	종중	개인	교육기관	사찰	기타	계
건	15	12	12	12	10	5	6	73

(4) 재료별 현황

문화재의 재료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석조가 23건으로 가장 많고, 목조 13건, 조적 11건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재료별 문화재 현황

재료	석조	목조	조적	회화, 서지	무덤, 유취	무형	기타	계
건	23	13	11	8	6	4	8	73

3.2 역사문화 경관자원 현황

(1) 지역별 분포 현황

총 33건¹²⁾의 대상 경관자원 중 75%인 25건이 상당구에 위치하고 있고, 15%인 5건은 흥덕구에 분포하고 있으며, 청원구에 6%인 2건, 서원구에 4%인 1건으로 나타났다. 상당구의 경우 25건 중 15건은 구도심 중심부에 있고, 10건은 상당구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구도심에 역사자원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조선시대 때 청주읍성이 있었고, 일제강점기 때는 관공서, 학교, 도로, 철도 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 형태별 분포 현황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점적 역사문화 경관자원이 총 31건으로 대부분이고, 선적 역사문화 경관자원은 2건에 불과했다. 점적자원은 건축물이 23건으로 대부분이고, 시설물, 장소, 기념물 등은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인공경관은 점이나 선의 형태로 지각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청주

12) 청주지역에 분포하는 총 73건의 역사문화자원 중 건축물, 성, 탑 등 경관계획에의 활용이 가능한 문화재 33건을 대상으로 현황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의 역사문화 경관자원은 대부분 인공경관으로서 점의 형태로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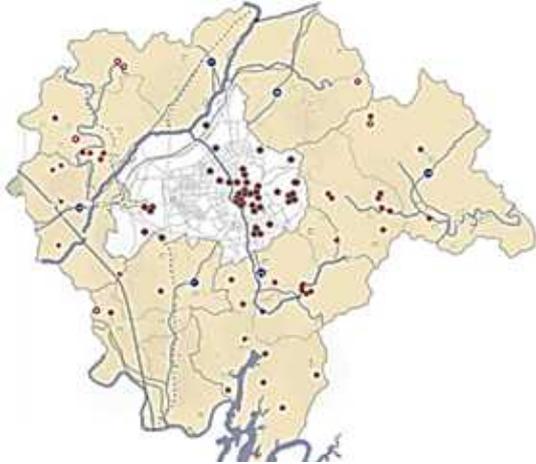


그림 1. 청주시 역사문화 경관자원 분포도

(3) 입지유형별 현황

역사문화 경관자원은 도로와 입지 위치와의 관계에 따라 +자형, T자형, -자형, 모서리형, 고립형 등으로 구분이 된다. ‘+자형’은 도로의 교차점에 문화재가 위치하는 경우로 대부분 광폭의 도로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 양측 건축물 보다는 배경의 건축물 관리가 중요하다. 이 유형은 서울과 같은 대규모 역사도시에서 많이 발견되나 청주의 경우는 보이지 않았다. ‘T자형’은 시각적 초점을 이루는 T자형 도로의 끝에 위치하는 경우로 문화재로의 직접적인 조망이 이루어지는 도로 양측의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문화재의 배경에는 일반적으로 고층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진입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다. 이 지역에서는 1건이 나타났다. ‘-자형’은 주요 도로를 따라 도로변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주요 도로를 따라 평행하게 배치된 건축물의 높이 관리가 필요하다. 이 지역에서는 6건이 보였다. ‘모서리형’은 주요 도로의 교차로 모서리에 위치하는 경우로 ‘-자형’ 문화재와 유사한 방법의 건축물관리가 필요하며, 이 지역에서는 1건이 나타났다. ‘고립형’은 도로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위치하는 경우로 문화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물의 높이관리가 필요하다. 이 지역에서는 23건이 조사되어 자원의 대부분이 ‘고립형’으로 나타났다.

표 9. 역사문화 자원의 입지별 분류

형태 \ 입지유형	점	선	면	계
+ 자형	-	-	-	-
T 자형	1	-	-	1
- 자형	6	-	-	6
모서리형	1	-	-	1
고립형	23	2	-	25
계	31	2	-	33

3.3 역사문화경관자원 평가¹³⁾

(1) 항목별 경관자원평가

경관자원에 관한 평가를 위해 6개 항목에 대한 5점 척도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경관자원에서의 조망점, 스카이라인, 시각적 연속성, 조망대상, 시각회랑, 시각적 개방감 등 6개 항목이다.

항목별 경관자원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조망점(View Point)은 경관자원을 조망하기 좋은 장소로서 1점(40%)과 2점(27%)이 가장 많아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스카이라인은 산이나 건물 등이 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윤곽으로서 2점이 6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시각적 연속성(Visual Sequence)은 대상을 보는 관찰자가 형이나 형의 그룹들을 연속된 상태로 인식하며 방향을 감지하는 경향으로서 2점(58%)과 3점(30%)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조망대상(Visual Target)은 좋고, 나쁨이 50%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시각회랑(Visual Corridor; 通景軸)은 연속된 조망을 할 수 있는 선적인 관찰통로로 82%가 3점 이하로서 평균 2점 내외의 낮은 점수를 보였고, 시각적 개방감(Sky Factor; 天空率)은 하늘이 보이는 비율 또는 외부를 볼 때 전체시야에서 건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4점이 70%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주시의 경우 경관자원 자체의 시각적 개방감은 우수하나 경관자원 조망을 위한 조망지점의 확보 등은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0. 경관자원 항목별 평가 분석

평가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조망점	13	40	9	27	6	18	4	12	1	3	33	100
스카이라인	3	9	21	63	7	21	2	7	-	-	33	100
시각적 연속성	3	9	19	58	10	30	1	3	-	-	33	100
조망대상	4	12	12	37	10	30	7	21	-	-	33	100
시각회랑	9	27	8	25	10	30	6	18	-	-	33	100
시각적 개방감	-	-	3	9	5	15	23	70	2	6	33	100

역사자원의 거리감을 분석한 결과 중경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경이 11건, 원경이 4건으로 조사되었다. 자연경관은 대부분 원경이나 중경으로 나타나고, 인공경관은 중경이나 근경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연구자가 자원의 보존 및 활용현황을 상세하게 조사하였으나 지면 관계상 일부 내용만 기술하였고, 이와 별도로 자원들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항목별 평가가 필요하여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충주시, 2008) 일부 내용을 참조하여 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11. 청주시 역사문화 경관자원 평가표

유형	문화제명	사진	평가점수						
			항목	1	2	3	4	5	
국보 (1)	용두사지 철당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48-19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사적 (4)	상당산성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124번길 14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사적 (4)	청주 흥덕사지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사적 (4)	청주 신봉동 백제교분군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산 12-1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사적 (4)	청주 정북동 토성 청주시 청원구 정북동 351-3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등록 문화 재 (8)	청주상고 구 본관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300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등록 문화 재 (8)	우리예능원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22번길 18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등록 문화 재 (8)	충북도청 본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92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등록 문화 재 (8)	주성교육 박물관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45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등록 문화 재 (8)	대성여자중 학교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08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등록 문화 재 (8)	구 충북산업 장려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92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표 12. 청주시 역사문화 경관자원 평가표(계속)

유형	문화제명	사진	평가점수					
			항목	1	2	3	4	5
지방 유형 문화 재 (9)	충청북도 지사관사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22번길 67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지방 유형 문화 재 (9)	청주동부 저수지 제수변실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43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지방 유형 문화 재 (9)	청주탑동 오층석탑 청주시 상당구 탑동로 35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지방 유형 문화 재 (9)	청주 향교 청주시 상당구 당고개로 42-21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지방 유형 문화 재 (9)	청주보살사 극락보전 청주시 상당구 낙가산로 168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지방 유형 문화 재 (9)	청주보살사 오층석탑 청주시 상당구 낙가산로 168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지방 유형 문화 재 (9)	청주동원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지방 유형 문화 재 (9)	청주만선루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지방 유형 문화 재 (9)	청주탑동 양관 청주시 상당구 탑동로 32번길 17-6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지방 유형 문화 재 (9)	청주신전동 고가 청주시 흥덕구 신전로 175번길 169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지방 유형 문화 재 (9)	청주성공회 성당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47번길 13-2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표 13. 청주시 역사문화 경관자원 평가표(계속)

유형	문화재명	사진	평가점수						
			항목	1	2	3	4	5	
도지정 기념물 (8)	청주 압각수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청주 충렬사 청주시 흥덕구 강상로18번길 44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청주 표충사 청주시 상당구 수동 87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신항서원 청주시 상당구 이경골로 115-8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방정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293번길 56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조망점	●						
		스카이라인	●						
무농정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273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가경동유적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가경동 산54-1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부모산성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산10-1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주성강당 청주시 청원구 충정대로 272번길 230-14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것대산 봉수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 107-2		조망점					●		
		스카이라인					●		
		시각적 연속성				●			
		조망대상					●		
방서동 고가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197-1		시각회랑						●	
		시각적 개방감						●	
		조망점	●						
		스카이라인	●						

표 14. 청주시 역사문화 경관자원 평가항목과 해석

항목	해석
View Point	조망점
Skyline	별딩 등 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윤곽
Visual Sequence	시각적 연속성
Visual Target	조망 대상
Visual Corridor	시각 회랑
Open/Close	천공률

도로에서의 접근방법은 보행접근이 14건, 보행 및 차량 접근이 19건으로 나타났고, 주변 주요도로에서의 거리는 이격되어 있는 자원이 11건, 인접하여 있는 자원이 22건으로 나타나 도로에서의 접근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주변의 시각적 현황은 사망으로 트인 자원이 26건, 막힌 자원이 7건이다. 대부분 도심에 위치한 자원들은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있을 알 수 있으나 이들 자원들이 저층의 점적 요소로 인식되다보니 인지성은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교외에 위치한 역사자원은 대부분 개방된 상태이어서 내·외부에서의 조망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4 청주시 관련계획 검토를 통한 활용계획 분석

‘경관형성기본계획’에서는 정북도성 주변, 청주읍성, 보살사, 철당간 주변, 산성문화유적 활용, 직지문화로, 백제고분군, 부모산성활용계획 등을 제안하였다.

‘주민참여형마을만들기’에서는 성안동 중앙공원정비사업과 직지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제안하였고,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방지방안’에서는 철당간 주변과 관련된 사업과 흥덕사 주변과 관련된 사업 및 근대건축현장의 보존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였다.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역사문화부문에서 4개의 계획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보전축을 4개 설정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역사문화여가지대로 설정하고 크게 4개의 지대로 구분하여 계획을 제안하였다.

‘도시재정비촉진방안’에서는 도시재정비활성화를 위한 7대 핵심 전략을 수립했는데, 3개축과 4개의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역사문화축(2축)과 역사문화복합공간(1공간)이 들어가 있어 역사문화자원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청주시 경관계획’에서는 역사문화와 관련된 경관사업을 6개 제안하였고, 역사문화경관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였다. 최근 10여년간 청주시에서 발간한 주요보고서에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및 계획과 관련된 부분만을 분석해 본 결과, 청주시의 역사문화자원을 철당간 주변 자원과 흥덕사 주변 자원으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알 수 있

있고, 주변지역은 부모산성, 정북토성, 상당산성 등의 권역으로 나누어 경관형성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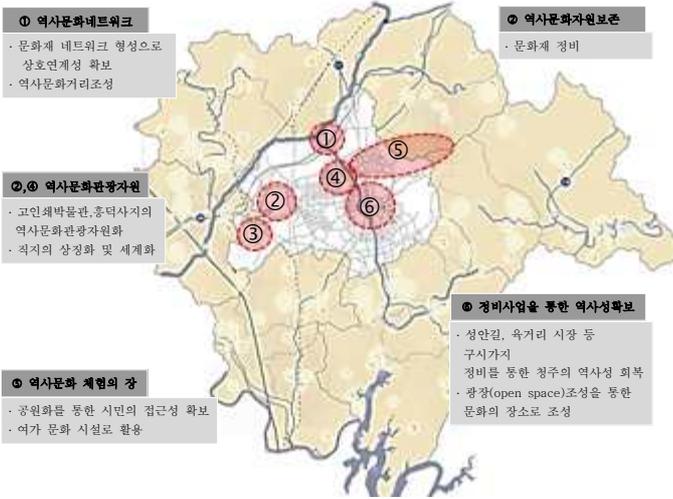


그림 2. 청주시 역사문화 경관사업

표 15. 청주시 관련계획에서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계획 분석

년도	사업명	세부사업제목
2002 · 12	경관형성 기본계획	정북토성문화경관개선사업
		청주읍성복원경관사업
		보살사(낙가산)주변 경관복원사업
		철당간 복원사업
		산성역사문화유원지경관개선사업
		직지문화로조성
		백제교분군주변 역사문화경관개선사업
2005 · 12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성안동 중앙공원 정비사업
		직지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2006 · 12	2010년 청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 공동화방지방안	역사(상업)거리조성
		관광과 상업의 연계
		관악공원 조성
		철당간 광장 주변 환경정비
		근현대사현장의 보존 및 활용
		청주읍성창안사업
2008 · 9	2025년 청주 도시기 본계획	계획표표전략수립(역사문화부문)
		보전축 설정(4개축)(역사문화여가 지대)
		문화재보호를 통한 도시정체성확 보
2009 · 1	청주 도시재정 비축진방안	역사문화축 설정(2축)
		역사문화복합공간(1공간)
2009 · 12	청주시 경관 계획	홍덕 역사문화 예술축 조성
		중심권역 역사문화경관 특화
		부모산 역사공원 형성
		정북토성 역사경관 관리
		상당산성 조망경관 형성
		중심권역1(역사·문화경관)
역사문화경관 가이드라인제시		

자료 : 청주시 관련보고서 정리

4. 역사문화자원의 경관계획 활용방안

4.1 기본방향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은 역사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 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자원이다. 도시경관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특성 있는 도시 이미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자원으로서, 역사문화경관은 단순한 사물이 아닌 주변 경관이 포함된 전체적인 이미지를 포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도시의 역사문화 경관요소로 활용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보기에 아름다워야 하는 경관성, 둘째, 지역고유의 특성인 지역성, 셋째,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 넷째, 환경적으로 쾌적해야 하는 환경성 등이 있다. 이 4가지 활용지표를 토대로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경관계획에의 활용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 1) 역사적 건축물이나 장소의 보전, 중요 역사문화자원 주변의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관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구역 설정 등 제도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 2) 주변지역으로부터 역사경관에 대한 조망확보와 주변 배경의 보전 및 정비를 통하여 지역의 지표물로서 효과적으로 부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 역사문화경관 진입부와 주변의 상업시설 등의 건축물 외관, 색채, 옥외시설물, 재질 등이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 4) 주요 역사경관 자원의 상징성 고양을 위해서는 주변 건축물 높이제한, 시각회랑 설정 및 야경연출, 역사경관의 왜소화 방지 및 스카이라인 보전을 위한 높이규제를 실시한다.
- 5) 역사문화자원 주변건축물 형태, 규모, 색채 등의 관리를 위해 문화재 자체의 시각적 왜소화 방지도 필요하고, 역사문화 경관자원이 도시 내 고립된 섬으로 위치하지 않도록 도로 및 주변 건축물 건설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 6) 역사경관에서 밖으로 향한 조망이 대규모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변지역을 관리해야 하고, 역사경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구를 적절하게 지정하여 역사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용도나 지나치게 거대한 건축물이 입지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대상자원의 부각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주변 시설물들과의 적절한 이격과 고도제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7) 면적 역사문화경관의 활성화는 점적 역사문화경관요소와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이루어 면적 역사문화경관 형성하도록 하며,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경관의 고유성을 살리는 면적인 보전이 중요하고, 지역 전체의 역사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 8) 점적 문화유산을 면적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전략 구축이 필요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경관으로서 서로 연

계된 특성을 지닌 역사경관인 경우에는 종합관리를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통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

9) 점적 역사문화경관자원을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가로형성계획, 역사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역사탐방로 조성, 역사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안내체계 정비 등 통합적인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

10) 역사문화 경관외의 주변경관자원을 중시하고 지역의 경관특성을 반영, 역사적 지명의 재현, 거리의 보존 등 역사적 요소를 소재로 지구 특성화 계획이 필요하다.

11)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무형의 역사경관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역개발과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주요 사적경관자원에 대한 주변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문화재와 주변 경관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체계적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표 16. 역사문화자원의 경관활용

<p>주요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이벤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 주민 참여형 체험프로그램 마련 지역문화 자원 문화행사 및 축제로 활용 	 <p>역사체험 및 교육의 장</p>
<p>대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세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의 상징성 및 세계화 테마별 여가 문화 시설로서의 확충 역사 문화자원의 보전 	 <p>역사건축을 넘어 이차로 주변건축물의 높이 규제</p> <p>관려대상 건축물 역사문화경관 보존지역 관려대상 건축물</p>
<p>역사문화자원을 생활의 장으로서 공간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적 가치계고 접근로 및 역사문화축의 확보 및 개선 주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조성 	 <p>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접근로확보</p> <p>주민의 여가, 휴식공간</p>
<p>주요 역사문화자원으로의 조망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요소의 시각적 연계성 확보 주 조망지점에서의 조망공간 확보 도로 등 외부에서의 조망권의 확보 	 <p>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조망 확보</p> <p>조망공간 확보</p>

4.2 자원형태별 활용방안

총 33건의 연구대상 자원 중에서 점적 자원이 31건으로 압도적으로 높고, 선적자원은 2건으로 나타났다. 점적 자원에서는 건축물이 23건, 기타가 8건으로 조사되었는데 점적 자원의 건조 환경에서는 보존 및 개량, 용도변경, 문화장소 조성, 전시관 건립, 이전보존 등의 형태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고, 자연환경의 경우 탐방로와 공원조성, 휴게 공간 조성 등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선적 자원의 경우 극히 일부로 나타났지만 건조 환경에서의 활용은 보행경관, 골목길 정비, 가치판단 후 철거 또는 보존, 산책로 정비 등이 있고, 자연환경으로는 하천이 대표적인데 산책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면적자원으로는 건조 환경에서 전통건축물 군집과 농어촌 경관 등이 있는데 가능하면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활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자연환경에서의 활용에서는 공

간구조 보존, 주변 자연 및 인공 환경과의 조화 유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표 17. 자원형태별 활용방안

구분	대상	일반적 활용방안
점	전통건축물	보존 및 개량
	근대건축물	외관보존, 용도변경
	공공시설	용도변경, 문화장소 조성
	산업시설	용도변경
	기념물	전시관 건립 또는 이전 보존
자연환경	산, 바위	탐방로, 산책로 정비
	수자원	공원조성
	나무	공원 또는 휴게 공간 조성
선	가로	보행경관, 골목길 정비
	성곽	유지보수 및 보존
	교량	역사적 가치 판단 후 철거 또는 보존
자연환경	하천	산책로 정비
면	전통건축물군집	한옥촌 보존 또는 공간구조 보존
	농어촌경관	주변자연환경과 조화유도
	자연경관	주변 건조 환경과 조화유도

자료 : (도시정비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세미나, 한국토지주택공사, 2007)을 참고로 연구자 제작성

5. 결론

본 연구는 역사문화자원과 역사문화경관의 개념 및 청주시 역사문화자원의 실태조사를 통한 경관요소로서의 활용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역사문화경관의 형성 및 관리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경관자원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활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청주시에 산재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전반적인 관리 및 이용실태를 보면, 관리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는데 다만 소유자가 다름으로 인해서 일괄적 관리가 되지 않아 관리실태가 아주 미흡한 자원들도 있고,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일부자원은 활용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역사경관자원으로서의 활용여부는 용두사지철당간, 흥덕사지, 상당산성, 경복토성 등 주요 자원들은 보존 및 활용이 매우 우수한 편이었지만, 대부분의 자원에서는 활용정도가 미흡한 편이어서 추후 종합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의 모색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입지유형별 현황은 도로와 입지 위치와의 관계에 따라 다섯 종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청주시의 경우 33건 중에서 23건이 고립형으로 조사되었다. 이 유형은 도로에서 일정거리 떨어져 위치하는 경우로 자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물의 높이 관리가 매우 중요한 관리방안으로 대두되었다. 조사대상 33건의 역사자원은 대부분 시

가지에 점적 자원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관리방안으로 시각회랑 확보방식으로 변경, 양각규제 방식의 유지, 필요 시 주변 지역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역사문화자원의 입지와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나 관리방안은 많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역사자원들에 대한 6개 항목의 경관평가 결과 조망점의 경우 일부 자원을 제외하고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 자원들이 대부분 점적 자원으로서 주변의 건물들에 의해 포위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카이라인도 자원의 점적 특성 때문에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적 연속성도 점적 특성 및 위치적 한계 때문에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망대상의 경우는 대체로 좋게 나타났으나 일부 구역 내에 있는 자원들은 조망차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탐방객들에게 아쉬운 점으로 부각되었다. 시각회랑(通景軸)은 비교적 규모가 큰 자원들에서는 양호하게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자원들이 규모가 적고, 개발에 따른 주변건물들에 포위되어 있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각적 개방감(天空率)은 대부분 좋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원의 주변건물들이 대도시와는 다르게 저층의 소규모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의 관련개념 고찰, 문화재 실태조사, 경관자원 활용현황 조사, 입지유형별 현황조사, 경관자원 평가 등에 관한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역사문화 자원의 경관계획 관리 및 활용방안으로 정리하였다.

역사문화경관은 단순한 사물이 아닌 주변경관이 포함된 전체적인 이미지를 포괄하여 관리해야 하고, 기존의 문화재 경관지구 혹은 완충 지구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300~500m 이내로 일괄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만으로는 문화재 경관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장할 필요가 있고, 문화재 경관보호의 효과를 향상 위해서는 경관지구나 완충지구 외곽에서부터 문화재 주변으로 점차 엄격한 규정을 도입해야 하며, 향후 역사문화 자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대상이 되는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고도규제뿐만 아니라 정량화되기 어려운 형태, 색채, 질감 등을 고려한 관리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도시 정비 시에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지역주민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 후 지역 내 주민간의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개 자원의 역사성 및 장소적 특성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개별 자원들의 건축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추후 천편일률적인 도시공간 구축을 지양하고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계승, 활용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다양한 역사경관 창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청주시, 청주시 경관계획, 2009
2. 청주시, 청주역사자료관 예코뮤지엄센터 건립기본계획연구, 2002. 3
3. 충주시, 충주시경관기본계획, 2008. 9
4. 충청북도,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2004
5.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경관계획, 발언, 2009
6. 오카와 나옴이·미후네 야스미치 엮음, 충남발전연구원 역, 역사적 유산의 보존·활용과 마을만들기, 도서출판 한울, 2012
7. 강동진, 근대역사환경 보전의 패러다임 모색. 국토계획, 제34권, 제1호, 1999
8. 박훈, 정재용, 역사도시의 도시조직 특성과 가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5권 제2호, 통권 247호, 2009. 5
9. 오세경·노홍석·김정동, 공주시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유형 분석, 국토계획, 제35권 제 5호, 2001. 10
10. 이기환, 도시역사환경으로서의 종로 피마길 보존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2
11. 장윤배·이훈·노병덕, 문화재 입지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와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토계획 제45권 제4호, 2010.8
12. 최강림, 이인환,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계획 사례연구:인천시 구도심 인천아트 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44권 제2호, 2009. 4
13. 한재희, 박광범, 예코뮤지엄 개념에 기초한 지역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1권 1호 통권 32호, 2009. 2
14. 신지훈, 역사문화경관과 도시경관계획, 한국경관인협회, 인간 중심의 공간문화조성에 관한 세미나, 2007
15.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도시정비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세미나, 2007. 12, pp.6~8

접수일자 : 2015. 1. 10
 심사완료일자 : 2015. 2. 20
 게재확정일자 : 2015. 2. 22